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연회 개최

농림부는 광우병 등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회수로 소비자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시범사업이 '05.2월부터 판매단계까지 구축됨에 따라 지난 3.30일 동협 하나로 마트(양재점)에서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 남호경 진국한우협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 김진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을 비롯한 소비자단체장, 유관기관, 학계, 언론계 등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는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여 원산지허위표시와 같은 둔감판매를 방지할 수 있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개군한우를 비롯한 9개 브랜드경영체와 LG백화점(무천점) 등 11개 판매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점차 참여업체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등급콜” 서비스 실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20만 축산업 종사자 및 관련자들의 편의 도모와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등급콜” 서비스를 4.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등급판정결과와 정략가격을 소는 기계별로, 돼지는 출하차별로 직계하여 실시간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문자로 전송해주는 것으로써 KTF(010, 016, 018) 이용고객 중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통보한다.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 홍보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소비자가 선정한 우수 축산물브랜드를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송(라디오), 인터넷, 여성잡지, 책자 및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1.26! 한우고기 8개 브랜드와 돼지고기 10개 브랜드를 우수 축산물브랜드로 인증하여 발표함에 따라 농림부에서 농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의 하나로 20초 분량의 라디오

광고를 "여성시대(MBC - AM)"와 "정오의 희망곡(MBC - FM)" 등을 통해 4.11~30일까지 실시한다. 또한

인터넷 경품이벤트 행사를 축산물브랜드종합정보서비스(www.hqbrand.net), 축산물등급판정소(www.kormeat.com),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net), 농마닷컴(www.azoomma.com)을 통해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진행하고, 우수 축산물브랜드 모음 홍보책자 3,000부, 포스터 5,000부를 각각 제작 배부하여 소비자가 인증한 우수 축산물브랜드에 대한 유통업체와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 나간 계획이다.



(우수 축산물브랜드 캠페인)

소·돼지도체 직무교육 실시

축산물등급판정기술력 향상을 통한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지난 3.1일부터 22일까지 각 시도별 축산물 등급판정교관단 3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을 이수후 교관단은 시도별로 자체 직무교육계획을 마련하여 현장 직원들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농협시울공판장과 협신식품에서 1박2일간 도체등급판정 실습교육과 축종별로 중점테마를 선정하여 토론을 개최하는 등 교육내용에 내실을 기하였다.

경영평가 실적 보고서 제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04. 4월 정부산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4년 경영평가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 농림부에 제출하였으며, '05. 4월 ~6월까지 경영평가단 실사를 거쳐 8월경에 국회에 최종보고된 예정이다.